

37. 三十年後の朝鮮

(30년후의 조선)

이 책은 1927년 모리가와 (森川清人) 와 야
 마다 (山田有明) 의 공동 저작인데 30년후 즉
 1955년 등 목포에서 출판되었다

저자의 전공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
 고 있으나 와다 이찌로 (和田一郎) 박사가
 서문을 쓴 것으로 미루어 ~~일본~~ ^{일본} 관련
 분야

두 가지의 수준은 짐작 할 만은 하다
 이종의 미래 예측인데 예언으로 하 호기
 심을 만족 시키기 보다 장래는 이렇게
 되었으면 하는 이종의 이상(理想)을
 제시한 것이므로 보면 된 것 같다
 내용 가운데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항도
 있고 또 우려가 머쳐 알지 못한 사항
 도 있다. 앞예를 들면 ~~한~~ 30년 후에는
 서울 ~ 부산간을 5시간에 주파할 등
 ①점역차의 출현이 2가지이고 → 7(舊)

京城帝國大學(경성 제국 대학)에 관한 이야
 기가 그것이다. 경성 제국 대학은 당초 일
 본에 있는 제국 대학과 같은 규모와 수준으
 로 건설된다고 당시 총장과 주요 교수들
 까지 내장 한 바 있었으나 당시가 알기론
 이 것이 중간에 방축의 변경으로 일본
 에 있는 제국 대학과는 약간 다른 모양의
 대학으로 변모 하였^다~~는~~
 내용인즉 당초는 일본과 같이 소규모
 에서 대학까지나 정연한 형식이 기초하

20x10

이 설립을 서둘렀는데 일부에서 하나씩
대학마다 백(百)개씩 소학교 증설이 비
람직 하다는 여론에 밀려 당초 설립 계
획이 사치시 되고 말았
이러하여 당초는 의과(醫科) 외에 법문
학부(法文學府)를 추가한 3개 학부를 가진
중앙 대학에 불과 하였
이 당시 경성 대학에 예과(豫科)가 설
치 되었는 데 이것은 조선에 고등 학교
가 없었기 때문이므로 고등 학교 를 대신

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

법문학부는 조선 문화가 동양 문명사에

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

대한 연구이다. 따라서 동양 문명에 관

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각광을 받았다

이밖에도 농림과(農林科) 수산과(水産科)

및 공과(工科) 등이 설치된 조선의 부원개비

(富源開覽)에 따르면 최고의 과학 연구소

가 되었다.

특히 공과(工科)에서는 석탄 용접과 수력발전

(水力発電)의 발전(発電)이 순응하는 최고
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
한편 조서는 100년 후에는 훌륭한 임야국
(林野國)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압
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시냇길 때에는 앞으로
300년은 번개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
6개 댐목을 연결하는 수상 댐목연차의
출현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
30년 후의 일본으로의 쌀 수출은 연간 1,640
만석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